투데이 칼럼

더 좋게 말하기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관계로 인맥이 형성되어 살아가야 한다. 인맥관계의 핵심은 말이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할까? 왜 함부로 말을 해서 관계를 좋지 않게 할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사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고 가끔은 서로에게 사납기까지 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 있다면 친절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좀 친절하지 않는 것 같다. 표현하는 것도 좋게 표현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왜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인 이유도 사회, 문화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본다. 어떤 이유이든 이 불친절한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집단의 직장인들이 행복할 수 없고 사회나 국가도 행복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성실히 노력하여 살아간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 중에는

첫째,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좋게 말하지 않거나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해도 상처를 받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도 그렇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상처를 주고 받는다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살다보면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가장 힘이 날지 생각해보자. 가슴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다. 필자도 부인과 자녀들에게 좋은소리, 위로의 말을 들을 때 큰 힘이 되는 경험을 했다. 이때는 힘든 순간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말, 좋은 감동의 행동을 해주어야 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좋게 다듬어서 솔직하게 말하자는 것이다. 느낌과 감정등을 나로 주어로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스피치기법을 터득해야 하는 이유다. 진실성과 전달법을 '나 전달법'으로 실천해 보자.

둘째는 우리는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말 당연한 일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이나 직장인들이 당연한 일, 당연한 행동에 상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짐작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수고했어', '고생했어',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즐거웠어' 등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스피치 생활이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기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결정적 요인은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한다. 즉, 가까운사람, 친절한 친구의 힘이 행복의 요인이다. 서로 잡담이나 소소하지만 친절한 말과 상대에게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 말투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더 좋게, 더 친절하게, 더 고품격 스피치를 생활해야 하는 이유이고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필수 현대인의 필수인 스피치학을 터득하자.

기고문

무령왕릉의 수호신 '진묘수(석수)'의 고장, 장수군

이 종 훈

장수군 부군수

1971년 여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진행된 무덤 발굴조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에서 우연히 확인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백제 25대 무령왕 (462~523)의 부부묘로 알려지며 백제사 및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무덤에서는 무덤의 수호신 '진묘수(석수)'를 비롯하여 5,200여 점의 중요한 유물들이 확인됐다.

이중 진묘수는 우리나라를 통틀어 최초의 발견이자 유일하다.

그 모습은 뿔이 하나이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뿔 뒤로 4개의 갈기(혹은 작은 뿔) 표현되어 있으며 다리에 날개 장식이 있다.

당시 고대사회의 사상과 미의식에 의해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발굴조사(1971년)로 인해 우리에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려 1,446년 동안 무령왕을 지켰던 수호신이다.

그 가치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1974년 '국보'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진묘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이다. 2014년 국립공주박물관은 진묘수를 만든 암석의 성분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진묘수는 각섬석암(화성암의 한 종류)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산지가 전라북도 장수군이란 사실이었다.

쉽게 말하면 장수군에서 유명한 곱돌이 백제를 대표하는 국보인 '진묘수'의 원재료였단 사실이다.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백제 무령왕의 남하 정책으로 장수군은 매우 혼란기였다.

당시 백제의 침략에 대비하여 봉화를 쌓았다는 문헌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장수군은 가야와 백제, 신라의 각축장으로 역사성이 확인되고 있는 곳이다.

'진묘수'가 어떻게 제작되어 무령왕의 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묘수의 원재료가 장수군의 곱돌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다만, "백제 무령왕의 남하정책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장수가야의 세력이 문헌기록에 언급된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는 기록과 연관되어 생각해 본다면 이는 "장수군에서 제작된 진보가 백제(공주)로 가지 않았을까"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사실이 학술연구를 통해 증명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써져야 할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일 것이다.

이외에도 완주군 갈동유적(초기 철기시대, 기원전후)에서 확인된 동검의 거푸집이 장수산 곱돌로 확인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장수군 곱돌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성을 가진 고장 장수군에서 새롭게 확인되고 정립되는 고대 역사문화는 나날이 새롭고 대단히 흥미진진하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조가 수놓은 화려한 역사문화는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장수군의 역사성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으며 앞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렘을 느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 설

대통령 이란 관련 발언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

대통령의 대(對) 이란 발언이 심상치 않다. 자칫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敵)은 이란'이란 발언에서 촉발됐다.

UAE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15일 현지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했다. 이런 가운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이란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됐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 의혹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인 새만금 사업지구 농생명 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빌린 일부 영농 법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내줘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680헥타르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영농 법인 11곳에 장기 임대했다.

국립대 3곳에는 작물 재배 연구 목적으로 50헥타르씩 무상 임대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땅 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화단지를 임대받은 대형 기업농이 직접 경작 원칙을 깨고 재임대를 통해 최대 3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피해 농어민협의회 관계자는 "A라는 법인이 임대료 1천만 원을 주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 법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B라는 법인한테 3천만 원, 2천만 원을 받고 그것을 재임대로 넘깁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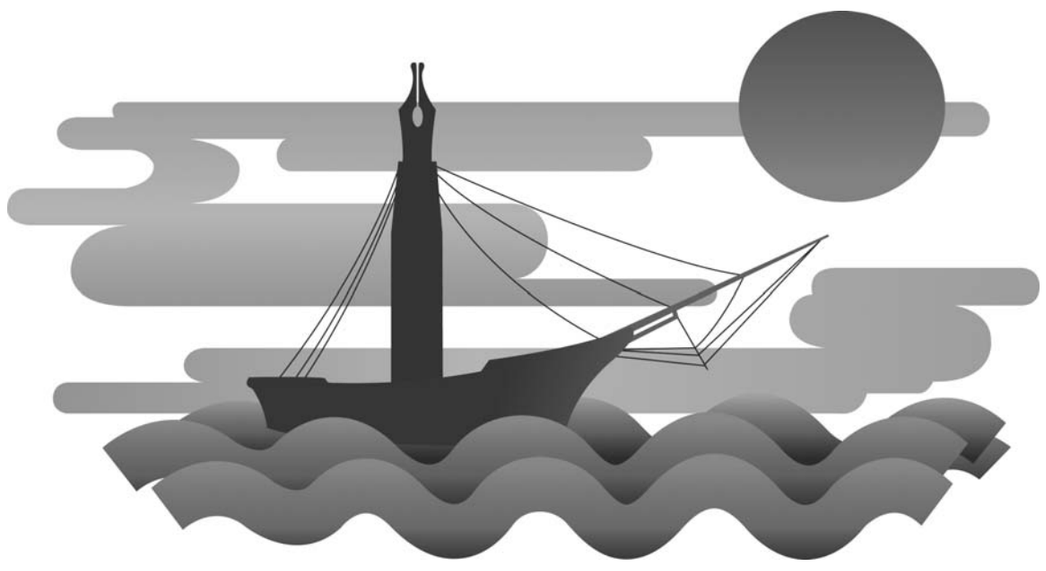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수 조사를 했다. 그러나 재임대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다시 전수 조사를 더 하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재임대 관련 뭐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당연히 취할 겁니다."라고 했다.

새만금 주변 농어민들은 '불법 재임대'에 항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철저하게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